

## 제1과 회개하지 아니한 유다 왕 여호야김

오늘의 말씀 : 예레미야 36장 1-32절

찬송: 262장(통196장), 263장(통197장)

간직할 말씀 :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렘 36:24).

주제 : 회개치 아니한 왕과 고관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다.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서는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멸망하는 전 과정을 담고 있다. 솔로몬 왕이 주전 930년에 죽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왕국에 멸망하여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였다. 이후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539 BC), 헬라(332 BC), 로마(64 BC)에 차례로 유다 속주(provincia)로 전락하여 그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주후 70년 유다-로마전쟁에서의 패배로 그 속주의 권리마저 상실하였으며, 주후 135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땅에서 추방되었다. 그때로부터 유다 속주는 ‘팔레스티나’(Palestina)로, 예루살렘은 유피테르(제우스)에게 바쳐진 ‘아엘리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가 되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세계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기적적으로 재건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예레미야서를 읽는다면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말씀을 나누며

#### 1. 유다왕국의 국운이 쇠하다.

유다왕국의 국운이 쇠하기 시작한 것은 요시아 왕이 이집트 왕 느고 2세의 북진을 므깃도에서 저지하다가 주전 609년 전사하면서부터였다. 당시 느고의 갈그미스로 향한 북진은 아시리아를 지원하여 바빌로니아의 서남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시아가 므깃도에서 전사하자 남왕국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었다가 주전 605년에 바빌로니아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에게 이김으로써 다시 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되었다.

요시아를 이어 여호아하스(요하난)가 주전 609년 23세에 왕이 되었으나 석 달 만에 바로 왕 느고 2세가 25세인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김을 왕으로 삼고 여호야김으로 개명시켰고, 여호아하스는 사로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다. 여호야김은 느고가 요구한 은과 금을 안겨주었다. 여호야김은 주전 605년부터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바빌로니아가 이집트 공략에 실패하자 친이집트파의 득세로 주전 601년경에 조공을 중단

해버렸다. 이 사실에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전열을 정비하여 주전 597년 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여호야김은 바빌로니아의 침공이 있기 3개월 전에 사망하였다.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여호야긴이 18세(혹은 8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느부갓네살은 그를 폐위시키고, 21세가 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후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갔다. 시드기야 또한 친이집트파에 편승하여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였는데, 그 대가가 주전 586년 유다왕국의 완전한 멸망이었다. 예레미야서는 요시아가 전사하기 18년 전부터(627 BC) 유다왕국이 완전히 멸망하여 바빌로니아로 유배되어간 직후까지 예레미야의 예언활동을 담고 있다. 예루살렘성전이 불탄 날이 아브(Av)월 9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성전이 불탄 날도 같은 날이었다고 한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티나에서 추방된 이후 일 년에 단 하루 성전과 괴를 애도하는 날(Tisha B'Av)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출입이 금지되었다.

## 2.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신하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신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정치적으로는 국제정세를 읽지 못한 탓이었다. 유다왕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집트는 높고 약한 사자에 불과했고, 바빌로니아는 젊고 강한 사자였다. 그런데도 유다 왕들과 고관들은 친이집트 정책을 펼쳤다. 종교적으로는 유다 왕들의 주변에 있던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었다. 하나냐와 같은 예언자는 왕에게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동족을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속히 돌려보내실 것이고 또 바빌로니아가 탈취해간 성전의 기물들도 곧 되찾게 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그의 예언은 유다가 목에 맨 바빌로니아의 멍에가 꺾인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바빌로니아의 왕이 반드시 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로부터 적어도 70여년이 지나야 고국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빌로니아를 꺾어 버리고 예루살렘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거짓 평안'을 예언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예루살렘에 진군한 바빌로니아 군대는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고, 성전을 약탈했으며, 많은 수의 유력 인사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유일한 장소인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거짓된 안일에 빠져 하나님의 뜻(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했던 결과였다. 이 거짓 안일에 빠지게 한 당대의 예언자들이 바로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이집트에 편향되어 있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와 같은 무능한 왕들과 그들의 책사들이었던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무려 656년간이나 주권을 빼앗긴 채로 제국들의 속주(provincia)가 됐어야 했고, 그 이후로 1878년간이나 세계지도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없고,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 남의 나라들을 떠돌며 온갖 박해와 수모를 겪어야 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웃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다. 북왕국 이

스라엘도 오므리와 아합 왕 때 이웃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아시리아라는 패권국가가 등장한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쳐야했다. 남왕국 유다도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 조공을 바쳐야했다. 그런데 주권을 가진 채로 조공만 바치는 것과 주권을 빼앗긴 채로 속주(provincia)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속주는 식민지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후 70년에 그 속주의 권리마저 빼앗긴 채로 1878년간이나 나라 없이 남의 나라들을 떠도는 방랑자들이 됐어야만 했다. 이 무서운 민족의 재앙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와 같은 무능한 왕들과 그들의 책사들이었던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한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찢고 불태우다.

36장 1절에서 “여호야김 제사년”은 주전 605년을 말한다. 주전 605년은 바빌로니아의 지배아래 놓인 첫해를 말한다. 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6절의 금식일은 24시간 금식하는 대속죄일을 말한 것이거나 해가 있는 낮 동안만 금식을 하는 그 주의 월요일이나 목요일을 말한 것일 수 있다. 또 월요일과 목요일은 예루살렘에 장이 서는 날이어서 사람들이 많았다.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으로 하여금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적게 하여 여호와와 성전에서 낭독하게 하였다. 여기서 “여호와와 성전”은 예루살렘성전의 여성의 뜰을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루살렘성전은 미문 안쪽이 유대인들의 광장인 여성의 뜰이고, 미문 바깥쪽이 광장인 이방인들의 뜰이다. 장이 열린 곳은 아마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이다.

9절의 “여호야김의 제오년”은 주전 604년을 말하며,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은 지 일 주년이 되는 해이다. 구약성경에서 “구월”은 ‘키스레브’(Kislev) 월로써 태양력의 12월에 해당된다. 이달 유다에 금식이 선포되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대필가로서 왕의 병참감이었던 스라야(렘 51:59)의 형제였다(36:14). 10절의 “성전 위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성의 뜰로부터 15계단 위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뜰을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룩은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는 “문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였는데, 그 장소가 여성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사이였다. 따라서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의 뜰에 선 13세 이상의 계명의 아들들과 여성의 뜰에 선 남녀 유대인 모두를 말한다.

이 사실을 안 고관들이 바룩으로 하여금 자기들 앞에서 이 두루마리 책을 읽게 하였고,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으며, 왕은 여후디로 하여금 자신과 고관들 앞에서 그 책을 다시 읽게 하였다. 22절의 “구월”은 ‘키스레브’(Kislev) 월로써 태양력의 12월에 해당된다. 그래서 왕은 겨울궁전에 머물렀고, 곁에 “불 피운 화로”가 있었는데, 23절 “여후디가 그 앞에서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고 하였던 것이다.

왕의 이 같은 행동은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취한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행한

악한 행위였다.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였고, 끝내 멸망당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에 담겼던 모든 내용을 다시 쓰게 하였고, 여호야김 왕에게도 다음과 같은 경고장(29-31절)을 보내게 하였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빌로니아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의 예언활동 기간은 40년이 조금 넘는다. 그중의 10년을 여호야김 왕에게, 또 다른 10년을 시드기야 왕에게, 바빌로니아 왕의 명을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망할 것이고, 바빌로니아 왕의 명을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렘 27:8-11).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와는 정반대로 예언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의 명을 꺾었고, 빼앗긴 성전의 모든 기물과 잡혀간 유대인들이 이 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렘 28:2-4).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이 잘못된 예언을 믿고 참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치 아니하였다. 그 결과가 656년간 주권을 빼앗긴 채로 제국들의 속주(provincia)가 됐어야 했고, 그 이후로 1878년간 나라 없이 남의 나라들을 떠돌며 온갖 박해와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 세월이 장장 2533년간이었다. 회개치 아니한 왕과 고관들이 나라를 이처럼 처참한 수렁에 빠뜨렸다.

#### 말씀을 새기며

1.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반면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혹 하나냐가 전한 ‘거짓 평안’에 닿는 맥이 아닌지 숙고해보자.
2. 성경 66권은 ‘회개’와 ‘회복’을 주제로 삼고 있다. 다윗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회개하면 회복시켜주신다’는 이 주제 속에 담겨 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휼을 입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공휼을 입는 것만큼 위대한 투자가 없다는 점을 숙고해보자.

## 제2과 회개하지 아니한 유다 왕 시드기야

오늘의 말씀 : 예레미야 37장 1-21절

찬송: 276장(통334장), 278장(통336장)

간직할 말씀 :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렘 37:2).

주제 : 회개치 아니한 왕과 고관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다.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37장 1절은 주전 597년의 상황이다. 주전 605년에 이어 두 번째 침략 때였다. 열왕기하 24장 13-17절을 보면,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을 빼앗고, 여호야긴 왕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과 “용사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사로잡아 갔으며,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맛다니야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고 했다. 그러나 37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이때 곧 주전 597년의 상황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주전 586년 유다왕국의 멸망을 가져온 세 번째 침략 때의 상황을 말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후자를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39장 1-2절에 따르면,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한 해는 “시드기야 왕의 제구년 열째 달” 곧 주전 587년 1월경이었다. 이스라엘의 열 번째 달은 테벳(Tevet)으로써 우리의 1월쯤에 해당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드기야의 제십일년 넷째 달”은 바빌로니아 군대에 포위당한지 18개월만인 주전 586년 7월경이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달은 탐무즈(Tammuz)로써 우리의 7월쯤에 해당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성전이 불에 타 소실된 것은 그 다음 달인 아브(Av)월 9일이었다. 아브월은 우리의 8월쯤에 해당된다. 참고로 금년 2022년(히브리력 5782년) 아브(Av)월 9일은 8월 6일 해질 때부터 7일 해질 때까지이다.

### 말씀을 나누며

1. 왕과 신하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

1절의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말한다. 여호야긴은 주전 597년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당하기 3개월 전에 사망한 부친 여호야김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느부갓네살이 그를 폐위시키고 21세인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숙부인 맛다니야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불렀다(대상 3:15, 왕하 24:17). 고니야라 불리는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갔다.

더 큰 문제는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에 있다. 예레미야는 유다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예

레미야는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떼고 그를 섬기는 나라와 백성이 살아남을 것이라고도 했지만,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지겠고, 포로 된 중에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빌로니아에 유배되어 갔을지라도 회개하면 회복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재앙이 주는 의미가 경고든, 심판이든, 구원이든 핵심은 회개이다. 경고의 내용이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아서 재앙심판을 받았다하더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이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야김 때인 주전 609-598년에는 유다왕국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다는 징조들이 매우 많았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아시리아-이집트 연합군과 싸워 이겼고, 이로 인해서 이집트는 유다왕국에 대한 영향력을 잃었으며, 아시리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반면에 친이집트파였던 여호야김은 바빌로니아가 임명한 왕이었지만, 바빌로니아의 멍에를 벗으려고 애를 썼다. 이집트가 바빌로니아의 멍에를 벗겨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전술전략은 바빌로니아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두었다. 그 완충지대가 유다왕국이었다.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로니아에게 이미 패한 것에서 보듯이 이집트는 유다왕국을 보호해줄 만한 힘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바빌로니아가 주전 597년 혹은 588년 예루살렘에 진군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다왕국의 요청도 있었을 것이고,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이집트로 남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군대를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5절에 의하면, “바로군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더라.”고 했고, 11절도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라고 기록하고 있다.

2. 느부갓네살은 바로를 기만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는 시늉을 했다.

5절과 11절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집트 군대와 충돌을 피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빌로니아의 기만전술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유다왕국은 이집트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으로 착각하였다. 이 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3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였다.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철수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6-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렘 37:6-10).

한 때 이웃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나서 대략 100년쯤 후에 유다왕국이 처한 국제적 상황은 구한말조선이 처한 상황과 비슷했다. 바빌로니아 제국과 이집트 제국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였다. 그런데 이 당시 유다왕국은 이집트에 편향되어 있었다. 주전 609년에 이집트의 느고 2세가 멸망 직전에 있었던 아시리아를 도와 바빌로니아의 남진을 차단하기 위해 갈그미스를 향해 북진하면서 이스라엘로 진군하였고, 아시리아를 돕는 나라를 적으로 간주했던 요시아 왕은 아마겟돈으로 불린 므깃도에서 이집트 군대를 저지하다가 전사하였다. 이때부터 유다왕국은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로니아에 패한 주전 605년까지 대략 3년간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이집트의 느고 2세가 임명한 유다왕국의 왕 여호야김과 정치인들은 하나냐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과 함께 이집트에 편향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다. 예레미야는 70년간은 바빌로니아를 이길 나라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단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을 매국노로 간주하는 정적들로부터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실제로 예레미야처럼 생각했던 우리야는 참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이집트파인 왕에게 처형을 당했다(렘 26:20-24). 그도 역시 예레미야처럼 침략세력인 바빌로니아제국에 복종하라고 매국적인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야는 이집트로 망명을 했지만, 이집트와 유다왕국 사이에는 종주권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인도협정과 같은 국제법에 의해서 조국으로 끌려와 처형되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나 우리야가 펼친 친바빌로니아적인 예언활동은 유다왕국이 취한 친이집트정책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고, 매국노로 찍혀 처형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 3.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옹덩이에 갇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나자 예레미야는 북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가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 하였다. 이곳은 예레미야의 출신지이기도 하였다. 그곳에 가자면 제물로 쓰이는 양들이 출입하는 ‘양문’을 지나야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베냐민 문’으로도 불린 듯하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가려고 한 이유는, 32장을 보면, 그곳에 숙부 하나멜로부터 기업을 무를 권리로 은 십칠 세겔을 주고 산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땅을 매입할 당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37장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는 숙부로부터 산 땅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성문을 통과하기 전에 체포되어 수문장 이리야에게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 수문장은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려고 도망가는 것으로 의심했던 것 같다. 예레미야가 친바빌로니아파였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끌고 갔고,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곤장을 치게 한 후에 뚜껑 씌운 옹덩이 옥에 가뒀다. 시드기야 왕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모른 채하였다.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믿었다가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집트 군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잠시 물러났다가 이집트 군대가 회군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자, 17절을 보면,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왕은 예레미야에게 비밀히 물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18-20절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18-20절). 이 가운데 19절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는 자신의 예언이 사실로 입증되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모두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는 점을 왕에게 상기시킨 말이었다. 이 말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청을 받아들여 뚜껑 씌운 옹덩이 옥에 가두지 않고, 감옥 뜰에 머물게 하였으며, 빵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빵 한 개씩 그에게 배급하였다. 여기서 한 개의 빵은 마른 덩어리 빵을 의미하므로 그 양이 충분치는 않았어도 크게 부족한 양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1절에서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포위되어 빵을 만들 가루가 성중에서 다 떨어져 죄수에게 더 이상 빵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 말씀을 마치며

왕과 신하와 백성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나긴 2533년간 겪어야했던 비극의 이유였다. 예레미야서의 주된 말씀은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예레미야 25장 8-11절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람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빌로니아의 왕을 섬기리라.”

#### 말씀을 새기며

1.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한 것도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멸망한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패권국으로 떠오른 아시리아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 시리아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었다. 이 당시 남왕국 유다는 시리아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아시리아 편에 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정치상황을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기도해보자.

2. 구한말 조선이 처했던 상황과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처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확실한 안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국민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숙고해보자.

### 제3과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유다 왕 시드기야

오늘의 말씀 : 예레미야 38장 1-28절

찬송: 449장(통377장), 446장(통500장)

간직할 말씀 : “예레미야가 이르되...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렘 38:20-21).

주제 :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자.

#### 말씀 앞에서

38장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상황에서 성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바빌로니아가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한 때는 “시드기야 왕의 제구년 열째 달” 곧 주전 587년 1월경이었다.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기간은 주전 586년 7월경까지 18개월간이었다. 이 기간에 겨울을 두 번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절에서 예레미야가 갇힌 구덩이의 바닥이 진흙탕이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 두 번의 겨울 가운데 첫해든 둘째 해든 겨울에 구덩이에 갇혔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거의 겨울에만 내리기 때문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서 가끔씩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을 보면, 그 자신도 앞날이 무척 걱정이 됐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했지 순종하지는 않았다. 그의 최후가 얼마나 처참했는가는 39장에 나온다.

#### 말씀을 나누며

##### 1. 예레미야가 바닥이 진흙탕인 구덩이에 갇히다.

주전 605년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로니아에 패하고 아시리아가 역사에서 지워지고 이집트가 노쇠한 사자였던 것이 드러나자, 유다왕국은 원치 않는 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되었고, 에스겔과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제1차로 바빌로니아에 잡혀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바빌로니아에 복종하고 배반하지 말라고 예언을 했지만, 바빌로니아에 의해 왕이 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기어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빌로니아를 배반했다가 주전 597년과 586년에 각각 제2차, 제3차 침략을 받아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왜, 유다의 왕들, 특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종종 묻기만 하고 순종하지는 않았을까? 어쩌면 바빌로니아가 이집트보다 더 독하게 유다왕국을 다뤘는지 모른다. 그래서였을까? 21세 때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0년 후 31세 때에 아들들이 처형되는 것을 똑똑히 봐야했던 두 눈이 뽀뽀한 채 포로가 될 운명의 시드기야는 이집트의 군사지원을 받아 바빌로니아를 막아야 한다는 반 바빌로니아파의 압력

을 받고 있었고, 암몬, 베니게, 모압, 에돔 등의 주변국들이 반 바빌로니아 동맹을 맺고, 유다왕국의 가담을 증용하였으며,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는 하나님을 반드시 바빌로니아를 꺾어 버리고 예루살렘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거짓 평안’을 예언 받고 있었다. 구한말 조선이 친일파와 친청파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함으로써 일제에 침탈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것과 상황이 비슷했던 것이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국제정세판도를 꿰뚫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주전 612년 함락되기 15년 전인 주전 627년 예언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쇠퇴를 읽고 있었다. 예레미야가 예언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627-586 BC) 근동세계를 장악했던 아시리아는 주전 612년 신흥 바빌로니아의 나보폴라살(625-605 BC)에게 수도 니느웨가 함락 당함으로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주변국들에 대한 지배력도 현저히 약해졌던 것이다. 이틈을 타서 이집트가 유다왕국의 지배력을 키웠고, 이로 인해서 유다왕국에는 친이집트파가 득세하였다. 이집트는 바빌로니아의 남진을 막아야 했고, 유다왕국은 두 제국의 충돌을 흡수하는 완충지대였다. 이집트는 근동의 패권국가와 싸우더라도 이집트가 아닌 유다, 암몬, 모압, 에돔 등의 지역에서 싸우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집트는 유다왕국의 보호자가 아니라 이용자였던 것이다. 이런 이용가치 때문에 이집트는 유다왕국에 바빌로니아보다는 훨씬 가벼운 멍에를 메웠을 수 있다. 그래서 유다왕국은 바빌로니아보다는 이집트에 복종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윗언약과 성전과 왕권이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와 성전’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민족주의자들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성전을 마술적으로 믿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권고하였다. 예레미야는 본문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고 하였다. 고관들은 이 같은 말에 분노하였으며, 6절에서 예레미야를 바닥이 진흙탕인 구덩이에 가뒀다고 했다.

## 2.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묻다.

본문 38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일정 부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예레미야를 증오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던 반면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시위대 뜰에 두었고, 종종 은밀하게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16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고 하였다. 이런 사실 때문에 겨우 30살을

넘긴 시드기야 왕이 친바빌로니아파인 예레미야와 친이집트파인 고관들 사이에서 사생결단하지 못하고 강성 이집트파이자 권모술수에 능한 고관들에게 질질 끌려 다닌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우유부단하고 책임을 회피한 왕이었다고 설명한다.

17-1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냉정하게 끝이곧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20-23절에서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 바 여호와와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피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시드기야 왕은 이 예언을 고관들과 공유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다. 아마 그는 그들을 설득할 만큼의 리더십이 없었거나 참과 거짓을 구분하여 옳음을 선택할 만큼의 안목이나 결단력이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이쯤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마 13:14). 이 예언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사 6:9). 예레미야는 15절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고 하였다.

### 3.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무른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의 믿음이 전자에 해당되고, 예레미야의 믿음이 후자에 해당된다.

1998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들 가운데 <눈먼 자들의 도시>와 그 후편인 <눈뜬 자들의 도시>가 있다. 이 책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눈이 멀고, 눈먼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눈이 멀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시민들이 다 눈

이 멀어버리는 비극과 눈먼 상황에서 벌어지는 참혹함이 묘사되어있다. 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육체적 장애이든, 영적 장애이든, 사회적 병폐이든 간에 흑암에 있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않은 단 한사람, ‘안과의사의 아내’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점차 회복되고, 인간애가 살아나고, 연대의식이 살아나고, 나눔의 정신이 살아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의식이 살아나고, 그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랫동안 오물구덩이 속에서 헤매던 인간들이 벌거벗고 깨끗하게 물로 씻듯이 망하기 직전에 있던 눈먼 죽음의 도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명예와 권세와 몰욕에 빠진 우매한 민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먼 지도층이 나라를 망치고 도시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런데 후편 <눈뜬 자들의 도시>에서는 우매한 정권이 전편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도시를 죽음에서 건져낸 실명을 피했던 유일한 한 사람, 안과의사의 부인을 선거에서 전체 투표의 70퍼센트 이상의 백지투표를 했던 눈뜬 자들의 주모자로 몰아서 암살을 한다. 이 소설들을 본문에 대입해 생각해본다면, 실명상태에 빠져 오물구덩이 속에서 헤매던 자들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었던 것이고,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아니한 자는 예레미야였던 것이다. 눈먼 자들이 눈뜬 자를 탄압하는 세상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 말씀을 마치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눈 먼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참 빛, 생명의 빛, 곧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눈먼 세상에 빛을 비쳤지만, 눈먼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다(요 1:4-5).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던 우매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마가복음 7장 35절은 귀먹고 어눌했던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풀리자 “말이 분명하여졌다.”고 했고, 8장 25절은 한 맹인이 고침을 받아 눈이 뜨이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고 하였다. 이렇게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풀리자 또 눈이 뜨이자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들이 바로 귀먹고 어눌한 자들이요, 눈먼 자들이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풀리고 눈을 뜬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이다. 전자는 세상에 어둠과 혼돈과 죽음을 가져오는 자들이고, 후자는 세상에 빛과 질서와 생명을 가져오는 자들이다.

#### 말씀을 새기며

1. 내가 혹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아닌지 반성해보자.
2. 나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해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점검해보자.

#### 제4과 예루살렘과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최후

오늘의 말씀 : 예레미야 39장 1-18절

찬송: 455장(통507장), 195장(통175장)

간직할 말씀 :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더라”(렘 39:18).

주제 :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는 목숨을 얻는다.

#### 말씀 앞에서

39장 1-2절에 따르면,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한 해는 “시드기야 왕의 제구년 열째 달” 곧 주전 587년 1월경이었다. 이스라엘의 열 번째 달은 테벳(Tevet)으로써 우리의 1월쯤에 해당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드기야의 제십일년 넷째 달”은 바빌로니아 군대에 포위당한지 18개월만인 주전 586년 7월경이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달은 탐무즈(Tammuz)로써 우리의 7월쯤에 해당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성전이 불에 타 소실된 것은 그 다음 달인 아브(Av)월 9일이었다. 아브월은 우리의 8월쯤에 해당된다. 주후 70년 로마군대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붕괴시킨 날도 655년(586 BC) 전 그 날 곧 아브(Av)월 9일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금년 2022년(히브리력 5782년) 아브(Av)월 9일은 태양력으로 8월 6일 해질 때부터 7일 해질 때까지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자들은 불행한 최후를 맞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예레미야와 구스인 에벳멜렉은 목숨을 얻었다. 특히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의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유다 성읍들의 새로운 통치자 그다랴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 말씀을 나누며

1.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체포되다.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시기를 보면, 제2차(주전 597년 1-3월경)와 제3차(주전 587년 1월경)가 모두 겨울이었다. 겨울이라고 해봐야 약간 쌀쌀한 정도이기 때문에 군대가 먼 길을 이동하는데 유리했을 것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막 13:18)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에 포위당한지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빌로니아의 고관들이 중문에 앉자, 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다.”고 하였다. “아라바로 갔다”는 아바라 쪽으로 곧 이집트 쪽으로 갔다는 뜻이다. 5절에 의하면,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고, 여리고 평원에서 모두 사로잡혔다고 하였다.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고도차는 대략 1000미터 정도이다. 예루살렘은 해발 780미터 정도이고, 여

리고는 해수면 아래로 250미터 정도이다. 도망하는 자나 추격하는 자들이 높이 1천 미터 정도의 산에서 여리고 평원으로 내달렸다고 보면 된다. 산길이라 강도당할 위험이 있어서 그렇지 도로사정은 나쁘지 않았다.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을 사로잡아 시리아의 “하맛 땅 립나”에 주둔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호송하였다. 립나는 다마스쿠스 북쪽 하맛에 못 미치는 중간에 있었다. 6-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고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8-10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성벽을 헐었다고 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사로잡은 포로들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고 했으며,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제3차에 걸쳐 바빌로니아의 침략과 유배가 완결되고 유다왕국은 철저히 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예레미야만큼은 끝내 살아남았다.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미래를 놓고 목숨을 걸고 왕과 주류세력들에 맞섰다. 11-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했고, 13-14절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고 하였다. 그다랴는 바빌로니아 속주(provincia)로 전락한 유다의 초대 총독이었다.

그리고 15-18절은 하나님을 믿었던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죽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이다. 38장 7-13절을 보면, 에벳멜렉은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달려가 주청하기를, 바빌로니아에 포위된 지가 오래되어 성안에 빵이 떨어졌는데,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 있으면 필시 굶어 죽게 될 터이니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왕은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했고, 에벳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줄을 내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출해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린 에벳멜렉의 목숨을 보존하신 것이다.

## 2. 역사를 읽는 패러다임

역사를 읽는 패러다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앙으로만 읽는 사관이요, 둘째는 정세로만 읽는 사관이며, 셋째는 정세와 신앙 모두로 읽는 사관이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예언자들은 그 이유를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때의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개

시키기 위한 사랑의 매였다. 부모가 잘못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것과 같다. 그렇다고 그것이 항상 가볍게 끝난 것은 아니다. 심한 경우 멸망까지 시키셨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왕국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왕국도 주전 586년에 멸망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재앙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끝에 또 많은 경고와 회개촉구가 있는 후에 닥쳤다. 재앙에 대한 전조는 항상 있었고 차고 넘쳤다. 이 전조를 읽는 패러다임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신앙만으로 읽고 해석하는 틀(패러다임)이고, 둘째는 정세나 지정학적 관계에서만 읽고 해석하는 틀이다. 셋째는 정세의 흐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읽고 해석하는 틀이다. 이 세 번째 틀(패러다임)로 국제정세를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조를 해석한 사람들이 이사야, 우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원인을 국제정세나 지정학적인 탓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나라를 원상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었다. 만일 그들이 국제정세나 지정학적 탓만으로 보았다면, 회복운동을 펼칠 수 없었을 것이다. 2,600여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의 나라에 대한 희망(Ha-Tikvah)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근거가 바로 이들 예언자들의 역사를 읽는 패러다임에 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에서 찾았다.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는가를 묻고, 그 해답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에서 찾았던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결론을 근거로 예언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을 펼쳤다. 그들이 당대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읽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회복에 대한 예언자들의 희망의 근거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있었다는 점도 마음에 새겨야 한다.

### 3. 예언자 예레미야의 영성

비록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었던 예레미야와 같은 당대의 예언자들은 회복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과 영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확신하였다. 비록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를 자기 민족의 빼앗긴 나라와 주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유대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민족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또 비록 유다 왕국의 멸망이 유대민족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슬픈 일이며 가장 큰 재앙이었지만,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도들

과 선지자들의 믿음과 전도 덕분에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인류가)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전 세계인들에게) 빛이 비취었다.” 유대인들의 불행(어둠, 혼돈, 죽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복(빛, 질서, 생명)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은 매우 중요하다. 영성이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이 뜨인 것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것을 말한다. 이런 뜨인 눈과 열린 귀가 있을 때, 말이 분명하게 되고, 만물을 밝히 보게 된다. 유다왕국이 세 차례나 바빌로니아제국의 침략을 받아 재산을 몰수당하고, 성전이 약탈되며, 사람들이 유배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다. 욥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영안이 열리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만한 귀가 없었기 때문이다. 욥신의 귀는 멀쩡했지만, 영이(영의 귀)가 열리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찍혀 감당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민족의 살길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선포하였다. 갇히고 매 맞고 매국노로 찍힌 고독하고 고통스런 생애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귀를 기우렸으며 민족의 살길을 외쳤던 예언자였다. 그가 바른 영성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하였다.

#### 말씀을 마치며

이스라엘의 멸망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로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도 읽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욥신의 눈들은 멀쩡했지만, 영안이 열리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욥신의 귀들은 멀쩡했지만, 영이(영의 귀)가 열리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참 예언자들의 경고를 수없이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신앙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쓰면 뽕고 달면 삼키는 신앙 곧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과 도구로만 삼았다. 설상가상으로 참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했다. 그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적 재앙이었다.

#### 말씀을 새기며

1. 만일 내가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할 것이다. 반면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막 8:18)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나는 현명한가, 아니면 어리석은가 성찰해보자.

2. <기도>(구상)란 시가 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들이 하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눈먼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두 이레 강아지 눈만큼이라도 보이게 하소서.” 눈뜨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 내게 있는지 성찰해보자.

3. 여리고 맹인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또 외쳤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는 겹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달려갔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막 10:46-52). 눈뜨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 과연 내게 있는지 성찰해보자.

## 제5과 유다 총독 암살음모와 풀려난 예레미야

오늘의 말씀 : 예레미야 40장 1-16절

찬송: 425장(통217장), 420장(통212장)

간직할 말씀 :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렘 40:6).

주제 :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40장 1-6절은 39장 11-14절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보인다. 예레미야는 끝내 살아남았다. 39장 11-14절은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지시에 따라 예레미야가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 40장 1-6절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대인 포로들에 섞여 끌려온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풀어주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7-16절은 유다 총독 그다라가 암살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이다. 그다라는 바빌로니아 속주로 전락한 유다의 초대 총독이었다. 그는 41장에서 암살을 당한다.

### 말씀을 나누며

1. 예레미야가 라마(Ramah)에서 풀려나 미스바(Mizpah)에 거주하다.

앞장인 39장 13-14절에서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살았다”는 분명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40장 1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예레미야가 사로잡혀 결박되어 다른 유대인 포로들에 섞여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다가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호의로 ‘라마’(Ramah)에서 풀려났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에는 ‘라마’라는 지명이 여러 곳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풀려난 곳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8km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이곳 라마에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한 것을 보면, 라마는 바빌로니아로 호송할 포로들의 집결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2-4절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고, 5-6절은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를 택하지 않고 미스바를 택하여 그곳에 거주하였다는 말씀이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 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말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때 예레미야는 당대 유대인들의 기대수명을 이미 넘긴 노인이었으므로 바빌로니아로 이주할 처지가 못 되었을 뿐 아니라 유대 땅에 남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고국 땅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었다. 바빌로니아의 유다 총독부가 있었던 미스바(Mizpah)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km 정도, 라마(Ramah)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2. 유대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유다 총독 그다랴의 통치를 받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대 땅에 남겨둔 사람들 중에 빈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39:10). 왕의 종친도 있었고, 이곳저곳에 숨어있었던 지휘관들과 부하들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으로서 왕의 장관을 지낸 자였고, 지휘관들 중에는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에베의 아들들, 여사냐가 있었다. 그들이 7-8절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렀다.”고 했다. “그다랴에게 이르렀다”는 뜻은 ‘그다랴를 만났다’ 혹은 ‘그다랴를 찾아갔다’는 뜻이다.

그러자 유다 총독 그다랴가 9-10절에서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맹세하며,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고 하였다. 11-12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 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대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고 하였다. 여기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와 “심히 많이 모았다”는 말은 바빌로니아에 바칠 공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39장 2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가 “넷째 달 아홉째 날” 곧 주전 586년 7월경이었다. 그리고 유다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한 때가 41장 1절에 의하면 그해 “일곱째 달” 곧 10월경이었다. 구약성경에서 일곱째 달은 ‘티쉬레이’(Tishrei)로써 우리나라 음력 8월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유다 총독 그다랴는 3개월간 유다 속주를 다스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재임한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밀과 보리 수확이 이미 끝나고, 무화과, 석류, 포도, 대추야자열매, 올리브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였다. 밀과 보리의 수확은 5월말과 6월

초 사이에 닿는 오순절경에, 올리브는 10월에 닿는 초막절(우리나라의 추석 곧 음력 8월 15일에 해당) 이후까지, 나머지는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에 수확된다. 그러므로 유다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와 “심히 많이 모았다”는 말은 유다 총독 그다라가 재임한 3개월간 실제로 이뤄졌을 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이름에 ‘~의 아들’이란 말이 유독 많은데, 이것은 히브리어 이름의 표준 형태로서 남자아이일 경우 아이의 이름 다음에 ‘~의 아들’이란 말을 붙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철수, 배호의 아들’ 곧 ‘Cheolsoo, benBaeho’라고 한다. 여자아이일 경우 아이의 이름 다음에 ‘~딸’이란 말을 붙인다. 예를 들면, ‘순이, 순자의 딸’ 곧 ‘Soonee, batSoonja’라고 한다. 아이가 제사장이면, ‘하-코헤인’(ha-Kohein)이란 말이 더 붙고, 레위인이면 ‘하-레바이’(ha-Levi)란 말이 더 붙는다.

3. 암살음모를 전해들은 그다라 총독이 그 말을 믿지 아니하다.

유대인이었던 그다라가 어떻게 해서 유다 총독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그도 예레미야처럼 친바빌로니아파였을 것이고,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아마 아람어에 능통했을 수 있다. 그는 또 어쩌면 바빌로니아 군대에 투항했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통역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때로부터 655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로마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갈릴리 전투에서 로마군의 포로가 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Josephus)였다. 요세푸스는 나중에 황제의 배려로 로마시민이 되었고, 티투스 장군의 통역관으로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지켜보았다. 로마에서 요세푸스는 황제의 옛 저택에 머물면서 연금을 지급받았으며, 황제가문의 이름인 ‘플라비우스’(Flavius)도 얻었다. 그는 로마황실의 비호아래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를 저술하였다.

그다라의 부친 아히감(Ahikam)과 할아버지 사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성전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26장 24절에 의하면, 그때 그다라의 부친 아히감(Ahikam)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아히감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이었다. 아히감의 부친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 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백성 앞에서 낭독한 사람이다(왕하 22:3-14, 대하 34:14-21). 왕은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반에게 명하여 성전에 가서 율법 책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라고 했다. 이에 사반은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서 예언을 받아 유다 왕 요시야에게 전하였다.

그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다 속주의 총독으로 삼은 것이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을 잘 돌보아 유다 왕국이 회복될 때를 대비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렸을 가능성이 크다. 예레

미야도 그다라에게 그렇게 조언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다라는 유다 땅에 남은 그 누구도 해칠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생각과 많이 달랐다.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친이집트파였고, 바빌로니아를 증오했으며, 바빌로니아를 섬기는 그다라와 예레미야를 해칠 궁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비록 그다라가 유다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레미야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친이집트파들은 그다라와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앞잡이 혹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13-16절에 의하면,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찾아와서 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이 반바빌로니아파인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Baalis)가 보낸 자객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다라는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심지어 요하난은 허락만 해준다면 자신이 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다라는 요하난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이 진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다라가 요하난의 정보를 가볍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그다라가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요하난이 분열을 피하고 있다고 보았을 수 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왕족이자 왕의 장관을 지낸 이스마엘을 죽이는 것은 유다 땅에 내린 끔찍한 비극에 비극을 추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하난에게 이스마엘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 수 있다.

####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바빌로니아의 꼬나풀이거나 바빌로니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의 길이 없어서였다. 또 예레미야는 유다 땅이 바빌로니아의 속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유다 땅에 유대인들이 남아 살아야한다고 믿었다. 유다 땅에 남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다왕국 회복의 희망의 끈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그다라의 오판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었다. 이스마엘의 반란과 요하난의 개입은 유다 땅에 남은 자들에게 더 큰 혼란과 비극을 초래하였다.

#### 말씀을 새기며

1. 실수나 잘못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단 한 번의 오판이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명예가 되는 경우가 있다. 유다 왕들은 물론이고 유다 총독 그다라와 그를 죽인 이스마엘까지도 동족에게 큰 비극과 고통을 안겼다. 혹시 나의 오판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보자.
2. 새찬송가 195(통175)장의 가사 가운데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가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고 가치 있게 만들었는지를 회고해보자.

## 제6과 이스마엘의 반란과 그다랴 총독의 죽음

오늘의 말씀 : 예레미야 41장 1-18절

찬송: 446장(통500장), 195장(통175장)

간직할 말씀 :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 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 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 함이었더라”(렘 41:16-18).

주제 : 단 한 번의 오판이 평생명예가 될 수 있다.

말씀 앞에서

39장 2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가 “넷째 달 아홉째 날” 곧 주전 586년 7월경 이었다. 그리고 유다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한 때가 41장 1절에 의하면 그해 “일곱째 달” 곧 10월경이었다. 구약성경에서 일곱째 달은 ‘티쉬레이’(Tishrei)로써 우리나라 음력 8월 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유다 총독 그다랴는 3개월간 유다 속주를 다스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재임한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봄에 밀과 보리, 여름에 무화과, 석류, 포도, 올리브, 대추야자열매 등이 수확되는 시기였다. 이들 곡물과 열매들의 수확은 5월말과 6월 초 사이에 닿는 오순절부터 10월에 닿는 초막절(우리나라 음력 8월 15일에 해당)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올리브는 초막절 이후에도 수확된다.

참고로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은 우리처럼 음력을 민력으로 사용한다. 다만 유대인들의 태음력은 동양의 태음력과 비슷한 반면, 모슬렘들의 태음력은 코란이 윤달 혹은 윤일을 사용을 금하고 있어서 일 년이 365(366)일이 아닌 354일이다. 따라서 이슬람력은 태양력인 그레고리우스력보다 해마다 11일이 짧고, 33년마다 둘 사이에 1년의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모슬렘들의 일 년은 우리보다 짧고 33년마다 1년이 더 추가된다.

말씀을 나누며

1.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다.

1-4절은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고 하였다. 이로써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 찾아가

서 이스마엘이 반바빌로니아파인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Baalis)가 보낸 자객이라고 일러준 정보가 거짓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유다 총독 그다라가 무엇 때문에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그다라가 요하난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이 진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뿐이다. 또 이스마엘 일행이 그다라를 방문하였을 때 그다라는 그들을 정중히 손님으로 모셨고 식사를 대접하였다는 점이다. 이스마엘은 바로 이 식사자리에서 보복잔치를 벌렸다. 이스마엘 일행은 단칼을 몸에 숨기고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아랍인들은 단칼을 몸에 지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식사할 때 몸을 바닥에 비스듬히 눕는다. 식사와 함께 포도주도 곁들인다. 이런 식사관행은 적의 기습에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유대인들에게 공동식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공동식사를 통해서 평화협정이나 계약체결을 인준하는 규정관습이 있었다. 이삭과 아비멜렉(창 26:30), 야곱과 라반이(창 31:54) 그러했고, 다윗과 아브넬이 그러했다(삼후 3:20). 쌍방 간에 의견이 교환되고, 그것이 수용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공포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기 때문이다. 그다라 일행과 이스마엘 일행이 함께 공동식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구두였던 문서형태였던, 상호 협력하고 돕자는 협약이나 계약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다라의 심각한 오판이었다. 이스마엘은 그다라나 요하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계획이 치밀했고 그 수법도 비열하고 잔인했다. 이스마엘의 반란으로 살해된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 그다라의 오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유다 총독 그다라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함께 했던 유다 사람들과 미스바에 잔류한 바빌로니아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마엘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했는지 4절에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들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건의 진상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뜻이다.

2. 이스마엘이 그다라에 속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해하다.

5-8절 “그 때에 사람 팔십 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의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에서 이 80명의 북쪽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스마엘은 왜 울면서 이들을 영접하러 가야 했는가?

이들 80명은 사마리아와 세겜과 실로 사람들이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적어도 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와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성경에서 일곱째 달은 ‘티쉬레이’(Tishrei)로써 우리나라 음력 8월에 해당된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티쉬레이’ 15일 곧 우리나라 음력 8월 15일 추석 때와 같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티쉬레이’ 10일 곧 우리나라 추석 5일전이 ‘대 속죄일’(욘 키푸르, Yom Kippur)이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목적이 바로 이 ‘대 속죄일’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욘 키푸르는 회개의 날이며, 연중 가장 엄숙한 날이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목욕하는 것, 화장하는 것, 가죽옷을 입는 것, 가죽신을 신는 것, 부부행위 등을 금한다. 이 날은 죄 사함을 받고 또 죄를 용서하는 속죄일이고,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해원(解冤)하는 상생(相生)의 날이며, 월초부터 시작한 열흘간의 회개의 기도를 완결시키는 날이고, 요일에 관계없이 모든 안식일 가운데 가장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 날은 24시간을 금식하며, 예배로 거룩하고 엄숙하게 보낸다. 그리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양각나팔을 분다. 예루살렘성전이 불타지 않았더라면, 이 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자신의 죄, 제사장들의 죄,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차례로 고백하는 정교한 제사의식을 거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흰 아마 옷을 입고, 일 년에 한 차례 바로 이 날에만 들어 갈 수 있는 지성소(至聖所)에 들어가 제물의 피를 뿌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진 숫염소(속죄염소)를 광야로 몰아내 죽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성전이 아브(Av, 태양력 8월쯤에 해당) 9일 곧 두 달 전에 불에 타 소실되었기 때문에 대 속죄일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단 한 개의 성전 곧 예루살렘성전만 인정해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여호와와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대신에 회당은 가장이 10명이상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세울 수가 있다. 나라를 잃고 하나밖에 없던 여호와와 성전이 불에 타 소실된 상황에 대한 큰 슬픔과 애통과 회개, 이것이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와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 이유였을 것이다. 또 이스마엘이 이들을 영접하러 나갈 때 울면서 간 이유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무엇 때문에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을 동족을 무참히 살해하였는가? 예루살렘성전을 향해 가고자한 북쪽 사람들이 단순히 예루살렘만 가고자한 것이 아니라, 새로 임명된 유다 총독 그다랴를 방문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그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를 찾게 되면 엄청난 반란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을 수가 있다.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식량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8절에 “그 중의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량을 얻기 위한 것만으로 동족을 70명이나 죽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3. 요하난이 백성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다.

9절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에서 구덩이는 바아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웅덩이(cistern)를 말하는데, 단순히 물을 가둬두는 큰 수조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해자 곧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파놓은 연못을 말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이시기에는 수개월째 비가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웅덩이가 말라있었을 것이란 점이다.

아사(Asa) 왕과 바아사(Baasha)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5장에 실려 있다. 아사 왕(재위 911 BC-870 BC)은 분열 유다 왕국의 3대 왕이고, 바아사 왕(재위 908 BC-885 BC)은 분열 이스라엘 왕국의 3대 왕이었다. 이 두 왕들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왕상 15:16).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자” 아사가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시리아) 왕 벤하닷(Ben-Hadad)에게 보내며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한때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기도 했던 아람은 이때다 싶어 군대를 동원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갔고, 이 소식을 들은 바아사 왕은 라마에 성을 세우던 일을 중단하고 급히 도망쳐 버렸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왕상 15:17-23).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벌어졌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친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범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 쳐들어가 성을 포위하기도 하고(왕상 20:1), 여자 아이를 잡아가 종으로 부리기도 하였다(왕하 5:2). 자강(自強)에 힘을 쏟지 않고 외세(外勢)에 힘을 빌리거나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우쳐주는 사례이다.

10절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에서 볼 때, 이스마엘의 반란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거사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암몬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암몬으로 피신했다고 해서 안전할 리가 만무하다. 오히려 암몬만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암몬 역시 바빌로니아에 조공을 바치는 처지요 약소국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에게서 유다 백성을 되찾아 온 것은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군 지휘관들이었다. 그들은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11절) 싸움에 나섰고,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힌 백성은 자기들을 구하러 온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이스마엘은 여

덥 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도주하였다. 이스마엘을 따르던 열 명중 두 명에게는 무슨 변고가 생겼던 모양이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이스마엘로부터 기브온에서 빼앗은 살아남은 백성 곧 군사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내시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다.”에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대략 9k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리고 게롯김함(Geruth Kimham)에서 게롯은 도로가의 숙박 장소 곧 ‘칸’(Khan)이라 불리는 여관을 의미 할 수 있고, 게롯김함(Geruth Kimham)은 ‘김함의 여관’이란 뜻일 수도 있다. 만일에 ‘게롯’이 요세푸스가 <고대사(X, ix, 5)>에서 말한 ‘기드롯(gidhroth)과 같다면, 그 뜻은 ‘허들’(울타리) 또는 ‘양 우리’를 의미할 수 있다.

김함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때 다윗이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님(오늘날의 요르단 땅)으로 피신해오자 다윗을 도왔던(삼하 19:37) 길르앗 사람 바실래(Barzillai)의 아들이다. 압살롬이 살해되고 반란이 진압된 후 다윗은 바실래를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여 여생을 같이 보내길 바랐으나, 나이가 팔십 세인지라, 다윗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대신 아들인 김함을 다윗의 신하로 딸려 보냈다. 김함이 연고가 없는 베들레헴 인근에 땅과 여관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의 땅인 베들레헴의 토지 일부와 저택을 김함에게 하사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 41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또 물었더라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피는 피를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잔인한 보복은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약소국에서 펼쳐진 한 토막 역사에 그치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수없이 많이 심지어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펼쳐진 비극적 역사이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같은 행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기도 했고, 지금도 그 형태나 방법은 다르지만 여전히 그 같은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말씀을 새기며

1. 본문은 이스마엘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주의와 박애주의를 비교해보자.
2. 어리석고 순진한 그다랴와 교활하고 잔인한 이스마엘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자.

제7과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오늘의 말씀 : 예레미야 42장 1-22절

찬송: 449장(통377장), 549장(통431장)

간직할 말씀 : “여호와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렘 42:11).

주제 : 인간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自招)한다.

말씀 앞에서

본문을 보면 인간에게 왜 불행이 끊임없이 지속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사람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불과 수개월 전에 국가에 닥쳤던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과 살아남은 백성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엄청난 재앙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함이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자 곧바로 자기들의 뜻대로 행한 것을 보아 그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대재앙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인간들의 서글픈 모습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고 속는다.

말씀을 나누며

1. 요하난과 백성이 속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다.
- 2-3절과 5-6절은 요하난과 백성의 속마음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입으로 말한 것과 상반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2-3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는 5-6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낸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와 서로 상반된다. 이 구절들은 또 9절과 20절이 서로 상반된 것과도 같다. 9절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와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2절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와 9절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우리의 탄원을” 혹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허락을 받게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와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고 한 말은 그들이 속마음을 속이고 예레미야에게 말한 뻔한 거짓말이었다. “우리의 탄원을” 혹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허락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우리가 가고자하는 길을 마음 편히 가게 해달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4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고 했고, 20절에서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는 ‘너희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또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불행을 초치(招致)하고 죽음을 자초(自招)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말과 달랐다.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결정한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써 그들은 또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스스로를 속였으며, 하나님을 속였다. 이로써 우리는 인간에게 지워진 명에가 누구의 잘못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自招)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고 속는다.

## 2. 예레미야가 요하난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7-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십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백성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흘씩이나 지체한 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 회개(번복)하기를 바라셨는지 모른다. 또 어찌면 예레미야가 그들의 뻔한 거짓말과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칠 불행을 내다보고 그들과 기싸움을 펼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들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지, 대안을 내놓는 것을 거부하였다. 결국 예레미야는 기도응답을 받고서 요하난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전하였다. 그 내용이 10-17절이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붙잡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붙잡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은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이 말씀에는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암시가 내포되어있다. 이 말씀 속에 포함된 준엄한 경고가 바로 그들이 불순종할 것이고 실제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신구약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부르짖은 목선 외침이 대부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 백성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지를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영적 장애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나 수단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는 등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었던 것을 후회한다는 식으로 말을 내뱉곤 하였다.

오늘날의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지가 명백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기보다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조금치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웃을 위해서 손가락조차 까닥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하는 것이고,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사람들로 부터 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대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노력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유익만 꾀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단 말인가?

3. 예레미야가 요하난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다.

18-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열흘 동안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백성의 마음속 결정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레미야의 눈에도 훤히 읽히는 그들의 속마음과 결정을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는가? 그러므로 18-22절은 진실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요하난과 백성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아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 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세상물정을 모르는 소리 같고, 뭔가 항상 손해를 보라는 식의 말처럼 들린다. 교만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살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결과였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시행한 일에 실패를 겪었을 때, 하나님을 무척 원망하며 교회에 다녀봤자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며 불평한다. 멸망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처럼, 요하난과 그를 따른 백성처럼 자기가 결정해 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시행해놓고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 원망한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해놓고서 그것이 자신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

을 잘못 안 것이 아니냐며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켰으면서, 뜻한바가 성공하면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고, 뜻한바가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혐오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상을 베푸신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새찬송가 195장의 가사처럼,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간절함 절실함 겸손함 진실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 말씀을 마치며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불행이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은 인간에게 왜 불행이 끊임없이 지속되는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흘러간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나라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등장인물이 다 다르지만, 발생한 사건들은 오늘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기에 충분히 만큼 비슷한 사건사고들이 많다. 그런데 요하난과 그를 따른 백성은 먼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며, 남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불과 3-4개월 전에 자기나라에 자기들에게 닥친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불순종하였으며, 예언자들을 속이고 이용하려 하였으며, 자기 자신들을 속였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인간들의 서글픈 모습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고 속는다.

#### 말씀을 새기며

1. 혹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나의 이야기,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저지른 실수에 적용하지 않고, 여전히 남의 이야기, 먼 옛날 유다 왕국이 처한 상황,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저지른 치명적 실수로만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2. 사람들은 왜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꼼꼼이 생각해봅시다. 또 그것이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닌지도 살펴봅시다.

제8과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이집트 다바네스에 정착하다.

오늘의 말씀 : 예레미야 43장 1-13절

찬송: 261장(통195장), 262장(통196장)

간직할 말씀 :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렘 43:7).

주제 :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43장은 교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5장 5-6절은 “...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였고, 이사야 28장 2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몰라 믿지 못했던 고대 그리스인들도 오만한 자들을 신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했고, 신들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보응한다고 믿었다. 반대로 겸손한 자를 신이 사랑하여 공훈을 입힌다고 믿었다. 테바이의 왕비였던 니오베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신이 혐오하는 사람’이 되었고, 남편과 열네 명의 자녀를 잃고, 분노와 슬픔에 찬 모습의 석상(돌)이 되고 말았다. 반면에 고린도의 난쟁이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신들을 믿고 감사예배를 바침으로써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신으로부터 공훈을 입었다. 신은 그가 조각한 아름다운 여성 석상(돌)을 사람이 되게 하여 그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리스의 파르나소스 산 중턱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계의 배꼽(움팔로스)으로 믿었던 델포이가 있었고, 그곳에 아폴론 신이 인간들의 운명을 맡긴 신전이 있었다. 그 신전 상인방에 “너 자신을 알라”는 경구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라는 뜻이었다. 이것을 알고 신 앞에서 겸손 하라는 뜻이었다. 이것을 망각하고 신에게 도전하면 반드시 응보(네메시스)가 따른다는 것이었다.

말씀을 나누며

1.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다.”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는 2-3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

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3절은 아사랴와 요하난과 백성을 일컬어 “오만한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단정하였다.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선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가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을 일컬어 “오만한 자들” 곧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였고, 반대로 그들은 예레미야를 일컬어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 또는 바룩의 부추김에 놀아난 자 또는 살아남은 자기들을 바빌로니아에 노예로 넘기려고 꾀수를 부리는 자라고 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생존자들이 유다 땅에 남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42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분명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또 전지전능하시다면, 이방나라들의 모든 신들이 피조물에 불과하거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짓 신들에 불과하다면, 또 만일에 바빌로니아의 창조신 마르독이 짐승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독으로부터 자기 백성의 나라를 보호하지 못하고 빼앗기게 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할 수 있으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파리 목숨처럼 처참히 죽도록 둘 수 있으며, 여호와를 모신 유일한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불에 타게 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고대의 전쟁은 수호신들의 전쟁이었다. 바빌로니아의 수호신은 마르독이었고, 유다왕국의 수호신은 여호와(야훼)이셨다. 보통 사람들의 판단으로 본다면, 여호와가 마르독에게 패배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판단은 달랐다. 여호와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라는 회초리를 이용해서 유다왕국의 죄악을 훈육하신 것이었다(사 10:5, 15). 여호와가 마르독보다 능력이 없어서 유다왕국을 바빌로니아에 넘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영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와의 관계는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였다. 613개의 모세 오경 계명들(토라) 뿐 아니라, 수많은 구전 율타리 법들(미슈나, 탈무드) 가운데 단연 최고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 1-2계명은 유대인들에게 닥친 모든 불행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최고의 기준이자 규범이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불행하게 된 것이고,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 회복된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핵심이었다. 예레미야의 예언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절은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2.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이집트 다바네스에 정착하다.

요하난과 유다 백성이 정착한 곳은 이집트 땅인 다바네스(Tahpanes)였다. 다바네스는 다반헤스(Tahpanhes)와 드합느헤스(Tehaphnehes)로도 불린다. 예레미야와 바룩도 이곳에 강제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한 다바네스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아니었다. 그들이 그곳을 정착지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정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미래는 평탄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불행이 예견되었다. 다바네스는 이집트의 나일 강 삼각주(지중해변) 동편 언덕에 있는 도시였다(렘 2:16). 유다와 이집트의 국경지대의 요충지로서 오늘날의 ‘텔 데프네’(Tel Defneh)로 알려져 있다.

8-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고 하셨다. 여기서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는 궁전 대문 앞 벽돌로 포장된 광장을 말한다. 또 “진흙으로 감추라”는 큼지막한 돌들을 숨기기 위해서 벽돌들을 거둬내고 그 밑을 파서 돌들을 숨긴 후 진흙으로 덮고, 그 위에 벽돌들을 원위치 시켜놓으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 행위 곧 퍼포먼스를 유다 사람들이 보는데서 하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퍼포먼스는 그들에게 주는 경고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경고의 내용이 10-13절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 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벤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0절에서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일컬어 “내 종”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내 종”은 고대근동세계나 그리스로마시대의 개념으로 볼 때, 주인이 부리는 노예를 뜻한다. “내 종”은 기업을 무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돌보는 노예(몽학교사)와 같다. 고대 그리스에서 몽학교사는 아이들을 교사들에게 데려다주고 감시하며 데려오는 보호자 노예였으며, 호신 겸 훈육을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13세 이상의 계명의 아들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에게 부득이 손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데, 그 회초리가 바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을 돌보는 노예(몽학교사)와 같다. 주인의 노예들은 주인의 아들이 장성하여 아버지의 기업을 무르게 되면 그 주인의 아들의 노예들이 된다.

또 10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는 점령군 황제가 천막을 치고 적국을 심판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소가 다름 아닌 바로 왕의 궁전 입구 광장인 것이다. 그리고 13절의 “벤세메스”는 히브리어로 ‘온’(On), 헬라어로는 ‘헬리오폴리스’(Heliopolis)를 말한다. 오늘날의 수도 카이로에서 동북방향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태양신 라(Ra)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다. 나일 강의 삼각주가 시작되는 곳으로 고센 땅 남단에 위치하였다. 바빌로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원정이나 이집트의 다바네스 및 벤세메스를 향한 원정이 거리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바빌로니아 군대를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이집트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겠다고 하셨다.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군사지원을 받거나 거주지를 허락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량의 조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볼 때, 유다왕국이 어차피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조공을 바쳐야했다면, 차라리 바빌로니아에 바치는 지혜로운 정책을 펼쳤더라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제국의 한 속주(provincia)로 편입되는 처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3.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멸망을 말씀하시다.

<역사의 연구>를 쓴 아놀드 토인비(A. J. Toynbee. 1889-1975)에 따르면, 인간의 문명은 자연환경의 도전에 직면한 인간이 성공적으로 응전을 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문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새롭게 부딪치는 도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응전을 해나가야 했다. 그러면 한 문명이 계속되는 새로운 도전들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토인비는 그 해답이 ‘창조적 소수자’의 창조성에 있다고 했다. ‘창조적 소수자’의 창조성이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토인비는 사회를 창조성을 지닌 소수자와 그렇지 못한 다수자의 집합으로 나눴는데, 창조적 소수자는 사회의 극히 일부이지만 새로운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창조성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 곧 대중의 지지를 얻어 그들을 이끈다고 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유다왕국에서는 이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창조적 소수자였다. 그러나 창조성(영성)이 없는 다수의 통치자들은 예레미야를 지지하지 않고 탄압하였다. 그 결과가 유다왕국의 멸망이라는 응보였다. 토인비는 그것을 ‘네메시스’라고 불렀다.

서두에서 우리는 신을 향한 오만과 자만이 사람을 석상(돌)이 되게 한 것과 신을 향한 경건한 믿음과 감사가 석상(돌)을 사람이 되게 한 그리스신화를 짧게 소개한바가 있다. 테바이의 왕비였던 니오베는 오만했다. 오만했기 때문에 신들을 가볍게 여기면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본받으려 하지 않았고, 감사예물을 바치지도 않았다. 니오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왕비였다. 남편 암피온이 어찌나 수금을 잘 탔던지 수금 소리만으로 돌을 들어 성벽을 쌓았던 왕이었고, 다스리고 있던 왕국도 자랑거리였으며, 무엇보다도 아들 일곱, 딸 일곱, 도합 14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자랑거리였다. 그 즈음에 예언

자 만토가 예언의 권능을 받아 테바이 여자들에게 레토 신과 아폴론 신과 아르테미스 신에게 향을 사르고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에 테바이 여자들은 모두 신전으로 나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지만, 니오베만큼은 온갖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나 예배하는 여자들을 신전에서 내쫓으며 하는 말이, “어찌 내가 레토 신만 못하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니오베는 오만이 지나쳐 자신을 여신으로 착각하였다. 그래서 니오베는 ‘신이 혐오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피그말리온은 신들을 믿고 감사예배를 바침으로써 ‘신이 사랑하는 인간’이 되었지만, 니오베는 신들을 모욕함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다. 레토의 아들이자, 활의 신인 아폴론이 쏜 화살들에 14명의 자녀들이 모두 비참하게 세상을 하직하였고, 남편은 자살하였으며, 참기 어려운 슬픔은 니오베의 몸을 돌로 바꿔놓고 말았다.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화살을 쏘는 아폴론을 향한 채, 제발 마지막 남은 딸만은 살려달라며 간청하면서, 몸뚱이로는 하나 남은 딸을 치마폭에 숨기고 있는 모습으로 돌이 되고 말았다. 물론 우리는 이 신화를 사실로 믿지 않는다. 그리스인들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오만과 자만은 불행을 초치하고 자초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란 것을 말이다.

#### 말씀을 마치며

어둠과 혼돈과 죽음은 자연법칙에 속한다. 과학에서는 그것을 열역학2법칙 혹은 ‘엔트로피’(Entropy)라고 부른다. 인간의 생로병사나 역사와 만물의 흥망성쇠는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다. 유다왕국의 흥망성쇠도, 유다왕국을 지배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지극히 자연적이지 역사의 한도막이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자연현상인 어둠과 혼돈과 죽음을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바뀌어나가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며, 성령님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비롯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였다. 유다왕국에 몰아친 어둠과 혼돈과 죽음 속에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과 질서와 생명을 보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40년 넘게 인내하며 항상 말씀을 전하였다”(딤후 4:2).

#### 말씀을 새기며

1. 대체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인지, 아니면 거역하는 편인지를 성찰해보자.
2. 대체적으로 나는 어둠과 혼돈과 죽음의 현실에 굴복하는 편인지, 아니면 그것들에 거역하여 하나님의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편인지를 성찰해보자.

제9과 회개하지 않는 흠어진 유다 사람들에게 재앙이 선포되다.

오늘의 말씀 : 예레미야 44장 1-30절

찬송: 279장(통337장), 280장(통338장)

간직할 말씀 :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렘 44:27).

주제 :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목숨을 잃는다.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서 1장부터 52장 끝까지를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된 글로 보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44장 역시 앞장들 특히 43장에 이어진 말씀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 이집트에는 요하난과 그 일행과 예레미야와 바룩이 다바네스로 이주한 주전 586년보다 더 빠른 주전 609년 이후 느고 2세에 의해 이집트로 끌려온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군대가 침략할 때마다(605, 597, 586 BC) 이집트로 도주했던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 전역 특히 1절에 언급된 지역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늪(멤피스)과 바드로스” 지역에 흠어져 살았는데, 44장은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경고메시지였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들, 그것들이 파피루스에 적어 보내졌든, 직접 구두로 전했든, 그 핵심은 4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지 말고, 복귀하여 그 땅을 경작하라는 것이었다.

말씀을 나누며

1.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 전역으로 흠어지다.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므돌과 다바네스와 늪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는 유다 사람들이 하(下)이집트의 주요 도시들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상(上)이집트의 주요 도시들에게까지 이주했음을 보여준다. ‘믹돌’은 ‘망대’라는 뜻이다. ‘망대’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지중해연안과 유대광야에 인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이다. 므돌은 ‘다바네스’를 가기 전에 있었고, ‘늪’은 멤피스를 말한다. ‘늪’은 카이로 남쪽 약 37km 지점의 나일강 서편 강둑 위에 있는 성읍으로써 이집트의 고대 도시들 중 가장 오래된 도시였다. 그리고 ‘바드로스’(남쪽의 땅이란 뜻)는 상(上)이집트 지역 수에네(아스완)에서 가까운 도시였다. 1절로 볼 때, 유다 사람들이 패망 직전에 도주를 했던 포로로 끌려왔던 이집트 여기저기에 흠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고국 땅을 향한 이주, 특히 예루살렘 시온에 오름(ascension to Zion)을 ‘알리야’(aliyah)라 부른다. ‘알리야’(aliyah)는 문자적으로 ‘오름’이란 뜻이다. 끊임없이 본향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선민의 조건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희망’을 ‘하티크바’(Ha-Tikvah)라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국가 제목도 ‘하티크바’이다. 가사는 이와 같다. “유대인의 정신이 마음 속 깊이 갈망하고 있는 한, 눈

을 동쪽으로 향하여 시온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천년을 간직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그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로의 이주행렬을 멈추지 않는다. 한 예로 러시아 한 나라에서만 이스라엘로 이주한 ‘알리야’의 수가 1998년에 1만4천 명, 1999년에 3만 명, 2000년 2만 명에 이른다. 이 같은 오름의 뿌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땅에 돌아가 그 땅을 일궈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외침이 있지 않나싶다.

2-6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는 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재앙이 임했는가를 말한 것이다. 그 이유가 십계명 제1-2계명을 어긴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우상숭배를 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40년이 넘게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였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고 말씀하셨다.

2. 이집트 전역에 흩어진 유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독려하다.

7-10절은 회개할 것을 독려하는 말씀이고, 11-14절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을 때 받을 재앙을 예고한 말씀이다. 유대민족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 인식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것이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말씀이다. 구약성경은 대부분 유대민족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고 있다. 예언자들의 활동표준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성실성에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예언서들의 내용은 언약에 대한 유대민족의 성실성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는가를 묻고, 그 해답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았던 것이다. 예레미야 44장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언약의 내용에 이스라엘 회중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무, 곧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 출애굽기 19장 5-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였고,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였다. 일찍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키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사 24:5) 때문이라고 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렘 22:9)라고 했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기”(렘 11:10) 때문이라고 했다.

3. 이집트 전역에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다.

15-19절은 ‘바드로스’(Pathros)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에게 반기를 든 모습이다. 바드로스는 상(上)이집트 지역의 툑소르(테베)와 아스완 사이쯤에 있었던 도시로 추정된다. 이 도시의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답하기를, 자기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본래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고 선언하였다. 자기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고 강변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섬긴 우상이 “하늘의 여왕”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의 여왕”이란 우상을 섬긴 것이 유다 땅에서부터였다는 것이다. 그 우상은 유다 땅에도 있었고, 이집트 땅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늘의 여왕”은 누구였는가? 가나안의 여신 가운데 ‘아스다롯’이 가장 유명하였다. 따라서 가나안땅에서 “하늘의 여왕”은 아스다롯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나안의 최고신은 엘(El)이었다. 엘은 ‘산당’을 뜻하는 아세라(Asherah)한테서 바알(Baal)과 아스다롯과 아낫(Anath)을 낳았다. 풍요와 사랑의 여신 아스다롯과 전쟁의 여신 아낫은 자매로서 오빠인 바알의 부인들이었다. 바알은 ‘주인’ 또는 ‘소유주’를 의미하며, 하늘의 폭풍, 비,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자, 척박한 근동에 비를 뿌리는 신이었다. 반면에 아스다롯은 바알로부터 비를 받아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생활을 많이 할수록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집트 땅에서 “하늘의 여왕”은 ‘이시스’(Isis)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하늘의 여신 ‘누트’(Nut)는 이란성 쌍둥이 남편이자 땅의 신인 게브를 통해서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를 낳았다. 그런데 오시리스가 동생인 세트의 손에 죽자 오시리스의 누이이면서 아내였던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사체를 수습한 다음 홀몸으로 오시리스의 아이를 잉태하였다. 이시스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호루스였다. 호루스는 오시리스의 환생

이었다. 아기 호루스는 세트의 복수를 피해 나일 강의 갈대숲에 숨겨졌다가 훗날 호루스가 세트를 패배시킨다. 이 과정에서 이시스는 신성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집트에서 널리 숭배되었다.

20-30절은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될” 것과 “이집트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줄”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여기서 ‘호브라’(Hophra)는 ‘아프리에스’(Apries, 589~570 BC)의 다른 이름으로써 바빌로니아가 주전 597년 혹은 588년 예루살렘에 진군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군대를 이동시켰던 바로였다.

#### 말씀을 마치며

이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유다왕국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버린 것은 아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그 생각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9장 12-14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였고, 30장 22절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였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사 우리가 회개하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재앙을 예고한 성경의 모든 글들이 회개를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든, 성경의 역사든, 유대민족의 역사든 경고의 의미와 심판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역사의 경고를 받아드리면 심판을 면하게 되고, 경고를 무시하여 심판을 받았더라도 회개하면 회복(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 말씀을 새기며

1.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아는 자, 사죄의 필요성을 알고 간절함을 갖는 자가 하나님께 공휼을 입는다. 하나님께 공휼을 입는 것보다 더 큰 투자는 없다.
2.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회개이다.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러주신 교훈이다. 회개는 회복(축복)의 통로이다.